



전주매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로 헌직 대통령 체포돼

공조본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12·3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이뤄져

공수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헌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 38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 53분경 경기도 과천 정부대전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공수처까지 이동했다. 별도의 신체 구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조본에서

헌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영장에는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 40분경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

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

장을 집행했다.

헌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

포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을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앞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헌직 신분으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전 조사를,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조사를 맡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10일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어, 특수본이 추가 10일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 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수품 물가 관리와 소비 촉진을 위한 선제적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도민의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관련사진 3면〉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초청하여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25~30일)기간 중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도민 불편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걱정 없는 지역경제를 위해 누적된 고물가의 영향과 성수품 물가 상승 등의 상황에서 서민들의 정비구리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사과 배 등 설 성

“도민과 함께”... 전북자치도,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안전대응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중점

수품 16종에 대한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기하고 골목상권 이용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 올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15→30%)하고,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할인 구매한도액을 50만원 상향하며(150만원→200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농축산물 8개소, 수산물 7개소)도 추진해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상품권 구매한도(최대 100만원), 할인을 확대(최대 20%) 등을 통해 명절 연휴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온

라인 마케팅 확대(141개 업체, 645개 품목), 우수상품권 선물전(170개 업체 참여)도 추진한다.

함께하는 민생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살피고,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로 금융 부담이 커져 어려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0억 원 규모의 전북 위기극복 특례 보증, 3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연계 특례 보증, 250억원 규모의 대환보증 등을 시행하고 기존 표준 처리일 수 7일에서 3일로 4일을 단축해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고

용부와 함께 업종별 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17~30일)을 운영지원하고, 임금 체불 실태점검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송력 확충 등 각종 편의지원과 빈틈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버스는 하루 130대, 철도는 10일간 30회(호남선 19, 전라선 11)를 늘려 운행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는 선박 검사기관의 확인을 거쳐 임시 여객정원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도와 고속도로 IC 등 6,863km를 대상으로 포트홀과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등을 집중 점검, 교통안전 위협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영

주차장 등 무료 개방(3만2,468면), 도내 공영묘지(14개소) 임시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14개 시군 37개 차량 정비업체 상시 운영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 연휴기간 응급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1개소에 대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일 평균 410개소, 병의원 220, 약국 190)을 확대 운영한다.

도민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및 자연·사회재난 사고 예방에 주력하며, 각종 상황에도 치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7개반 168명(1일 28명) 규모로 명절 종합상황실, 24시간 재난상황실,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 등을 통해 비상·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계획이다.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도 노력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사전점검도 추진중이고, 화재 안전조사 추진, 요양병원 등 취약대상 자위소방대 등 교육훈련 강화, 마을회관 소방안전교육(5,322개 마을)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문 발표 후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에는 지난 연말 이후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선결제 제도 도입, 지역상품권 이용장려, 도내 착한 가격업소이용 권장 등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하며 도민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부담 경감, 도민 안전 대응에 역점을 두고 올해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시민 중심, 으뜸 정읍

2025년 정읍시 핵심 운영 방향

1. 미 래 로 나 아 가 는 **희 망 경 제 도 시**
2. 하 루 더 머 물 고 싶 은 **문 화 관 광 도 시**
3. 미 래 기 반 산 업 육 성 으 로 앞 선 **첨 단 도 시**
4. 도 농 상 생 으 로 지 속 가 능 한 **농 촌 도 시**
5. 삶 에 온 기 를 더 하 고 누 리 는 **건 강 한 도 시**
6. 사 람 중 심 인 프 라 구 축 으 로 **편 리 한 도 시**